

불교예불의 의미와 행법

이성운 *

• 목 차 •

I. 서언

II. 상주예경

1. 불 자세 시 예경
2. 빠알리 경전의 예불
3. 보례삼보
4. 보례게주, 향 · 다게의 역할
5. 봉안예불

III. 소칭예불

1. 7정례 예경의 특징
2. 예참 예불
3. 소칭삼보예경

IV. 결어

* 동아시아불교의례문화연구소 연구위원.

한글요약

불교예불은 부처님께 인사를 드리는 일상의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원에서는 아침저녁 송주를 외는 정근과 더불어 전각에 모신 존상과 달리 석가모니 부처님을 비롯한 상주삼보와 삼보 중 승보를 다시 네 곳으로 세분해 일곱 배의 절을 하고 있다. 이 같은 형태의 예불은 상주예경이 아닌 실행하는 불법승 삼보를 세분해 청해 세분해 예경하고 참회하고 권칭하는 ‘예참’의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이 글은 어떻게 부처님께 예를 올리고 언제 올리며 어떤 마음으로 올려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다.

먼저 불 재세 시의 예경을 통해 처음 났을 때의 예경과 부처님 곁을 떠나갈 때의 예경을 보여준다. 부처님을 뵈는 순간 감화를 받는 장면으로 위의교화의 전형을 보고, 설법을 듣고 마음이 열린 이들이 부처님을 떠나가는 장면에서 부처님을 세 번 돌고 발에 얼굴을 대고 절하고 떠나가는 예경을 확인하고 있고, ‘빠알리경전’의 예경법에서는 예불, 삼귀의, 지계오계서원, 찬탄의 예경순서를 확인하고 있다.

예불은 육시, 삼시, 조석 이시의 정시(定時)와 법당에 들어가게 되는 수시(隨時)에 하게 되는데 이때 행하는 보례계주(普禮偈呪)의 모습이 등장하는 과정을 찾아 예불을 올리는, 보례계송의 의미를 밝힌다. 또 예불 앞에 향과 청수로 공양하는 다게(茶偈)와 오분향게(五分香偈)의 역할을 밝혀내고 있다. 중국과 일본에서 쓰이는 노향찬(爐香讚)이 아닌, 오분향게는 통신의 향으로 저녁에 올리고, 다게는 청해 모신 분이나 상주하시는 분에게 올리는 공양이므로 아침에 시설되지 않았을까 하고 추론하고 있다.

이 글은 현행 한국불교의 7정례 예불은 ‘예참’의 형태가 축약된 ‘소청예불’이라고 결론을 맺는다.

주제어

예경, 예불문, 보례계주, 삼정례, 칠정례, 향게, 다게

I. 서언

종교는 의례를 통하여 전인적 경험을 반복적으로 하는 과정에서, 인간 삶의 새로운 통일과 인격의 변화를 갖게 하고, 전통적 가치를 수용함으로써 공동체 정회원의 자질을 새롭게 각성하기도 하고 공동체의 결속을 강화한다.¹⁾ 매일 아침저녁 교조인 부처님과 그분의 가르침과 그분을 따르는 승가께 예경하며 나와 남이 함께 그와 같이 되겠다고[成佛] 발원하는 불교의 예불은 공동체의 결속을 강화하는 대표적인 일상의례라고 할 수 있다.

불교예불은 불(佛), 곧 부처님께 경의(敬意)를 표하는 것이다. 이때 표하는 외적 경의는 예배[절]로 실현된다. 조금이라도 불교를 아는 이라면 너무나 당연하게 여길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에 따로 말을 더하고 논할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 것이다. 이 글은 다음 세 가지 의문을 중심으로 예불의 의미가 무엇이며 어떻게 행해야 하는가에 대해 논의해 나가려고 한다.

첫째는 예불의 범주이다. 한국불교 일반에서 통상 말하는 ‘예불’은 아침저녁 불전에서 오체투지로 경의를 표하는 의문인 오분향례 또는 칠정례(七頂禮)로 불리는 ‘예불문’²⁾을 지칭한다고 할 수 있다.³⁾ 다시 말해 아침저녁이라는 정시에 불전에서 여러 불보살님들께 행하는 인

1) 윤이흠, 「종교와 의례」, 『宗教研究』16호, 한국종교학회, 1998, p.4

2)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 『통일범요집』(조계종출판사, 1998/2003), pp.55~57

3) 정각은 “도량송(道場誦) 종송(鐘誦) 예경(禮敬)”을 넓은 의미의 예불로, “다게 오분향례(계) 현향진언 예경문”을 좁은 의미의 예불이라 범주하고 있고(정각, 『예불이란 무엇인가』 운주사, p.27), 송현주는 “상단예불, 축원, 중단(신중단) 예불”을 ‘禮佛本儀禮’라고 하며, “도량석 종송 조석송주”를 ‘禮佛前儀禮’라고 범주하고 있다(宋賢珠, 「現代 韓國佛教 禮佛의 性格에 관한 研究」,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9, pp.31~45)

사를 예불이라고 이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인사를 받는 대상은 부처님, 법보, 보살님과 제대조사 등 승보님들이시다. 상주하시는 부처님 법보님 승보님의 삼보님께 예하는 것이라면 보례삼보⁴⁾, 찬례삼보⁵⁾라거나 ‘예석가모니불’ ‘예아미타불’ ‘예문수보살’ ‘예보현보살’⁶⁾이라고 하는 것이 적합할 터인데 그냥 ‘예불’이라고 하고 있다. 절을 받는 분들이 부처님을 비롯하여 보살님과 큰스님들이면 예경이라는 단어가 적절하다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불’은 부처님뿐만 아니라 상주삼보 조사, 중사, 신중에까지 그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이때 ‘불’의 의미를 붓다의 의미만이 아닌, 불가(佛家)의 의미로 인식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⁷⁾ 곧 대상의 문제가 아니라 행위의 문제로 수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⁸⁾

둘째는 예(禮)하는 대상이 어디에 계신가 하는 것이다. 각 전각에서 예를 표할 때는 그곳에 모셔진 성인을 칭명하면 예불을 하면 된다. 그런데 현행 한국불교의 조식 7정례는 어느 전각을 막론하고 봉행되고 있다. 비로자나부처님을 모신 대적광전이든 아미타불을 모신 무량수전

4) 弘贊 編, 『禮佛儀式』(X74), p.634a; 『水陸無遮平等齋儀撮要』 [『韓國佛教儀禮資料叢書』(이하 KR이라 약함) 第一輯, 삼성암, 1993], p.628上

5) 志磐 撰, 『法界聖凡水陸勝會修齋儀軌』(KR1), p.591下

6) 弘贊 編, 『禮佛儀式』(X74), p.634

7) 흔히 의례를 모아놓은 서적은 청문, 귀감, 제반문, 의범 등으로 불려왔다. 이와 같은 서적에 ‘예경편’이라는 편목이 나타나는 최초본은 안진호의 『석문의범』(1935)이라고 할 수 있다. 안진호의 『불자필람』(1931)에도 예경편이라는 편목은 보이지 않는다. 『불자필람』(1931)에는 39위 신중의 경우는 ‘신중단예식’, 104위 신중은 중단예식(禮式)이라고 하여 중단예불이라는 표현이 쓰이지 않고 있다. 이로 볼 때 예불이라는 의미가 확대돼 쓰인 것은 그리 오래된 일이라고 하기는 어려울 듯하다.

8) 유사한 사례가 불공(佛供)이라고 할 수 있다. ‘부처님께 올리는 공양’이라는 의미라면 신중께 올리는 공양은 신중공양, 관세음께 올리는 공양이라면 관음공양 하면 될 터인데, 신중불공, 관음불공, 지장불공이라고 하면서 용어의 대상자보다 행위를 중심으로 사고하고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진언권공』에는 ‘불공’(KR1, p.480上) ‘제천공양’(p.481上) ‘고훈수향’(p.486上)으로, ‘대상+행위동사’로 변별하여 사용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이든 약사여래불을 모신 약사전이든 7정례로 봉행되고 있다고 보인다.⁹⁾ 신앙하는 부처님을 모신 불당에서 조석으로 인사를 올리는 예경은 -문헌자료에 보이지 않더라도- 적어도 신심 있는 행자라면 행해졌을 것으로 쉽게 추측할 수 있다. 『한국불교의례자료총서』 소재 70여의례 가운데 목록에 ‘예불절차’라는 구체적 항목이 보이는, 이른 자료는 19세기 중엽 해인사 도솔암에서 간행된 『日用作法』이다. 하지만 이 자료에 나타나는 예불절차는 보례계주와 불타 달마 승가야중에 3정례하는 3종의 의문과 104위 성중을 불격(佛格)의 상위, 천격(天格)의 중위, 신격(神格)의 하위 3위계 절하는 신중예경과 유원의 말구 원망(願望)이다.¹⁰⁾ 보례계주에서 보듯이 이 분들은 변재(遍在)하는, 두루 상주(常住)하시는 분들에게 인사[예불]를 하고 있을 뿐이다. 각 전각에 모셔진 분께 예를 다하는 것이 예경이고 예불이라면 왜 대웅전에서 모셔진 분이 아닌 여러 불보살님과 제대조사님께 예를 올리는가.

셋째, 예경은 어떻게 올려야 하는가. 오늘날에는 조석에 송주를 하고 불보살님께 예를 올리고 축원을 한다. 현재의 예문은 ‘지심귀명례 삼계도사 사생자부 시아본사 석가모니불’로 시작한다. ‘지극한 마음으

9) 『석문의범』(1935) ‘예경편’의 대웅전에 향수해례 등 8편의 예경문을, 극락전 약사전과 같은 불격을 비롯하여 신중단 산왕단 등 14곳의 전각(殿閣)에서 행하는 예경문을 시설하고 있다. 동일 편자의 『불자필람』(1931)에도 예경편이라는 편목은 보이지 않고 각 전각의 예경은 보이지 않는데 이 의례서의 수정 보판이라고 할 수 있는 『석문의범』(1935)에 각 전각의 예경문을 실은 것은 현실적 수요에 의해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10) 『日用作法』(KR3), p.530上下. 이 책은 『日用儀式隨聞記』(金月雲 編, 中央僧伽大學出刊局, 1991)의 ‘승가일용작법’, ‘불가일용작법’이라는 명명과 묵언작법의 소재목에서 ‘승가일용식시묵언작법’의 영향으로 ‘승가/불가’라는 관형어를 달고 있지만 서명에 굳이 승가나 불가라는 한정사를 달 필요가 없다고 보인다. 이전의 ‘작법귀감’, ‘제반문’, ‘운수단가사’ 등의 명명을 볼 때 승가니 불가니 하는 것은 유사한 종교집단과의 차별화의 필요에 의해 달게 되었으므로 더욱 그렇다. ‘기독교성경’을 하지 않고 ‘성경’이라고 하니 우리가 알아서 ‘불교성전’이라는 명명을 택한 것과 맥락을 같이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그냥 『日用作法』이라고 불러줘야 할 것으로 본다.

로 ~에게 귀명의 예를 올린다.’라는 의미로 핵심 동사는 귀명의 ‘예’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향수해례>의 ‘나무 향수해 화장계 비로회해 제불제보살’과 <사성례>의 ‘나무 서방정토 극락세계 아등도사 무량수 여래불 나무아미타불[각 십성씩]’이나 <강원상강례>의 예경의 행위동사는 ‘예’가 아닌 ‘나무’이다.¹¹⁾ ‘나무’는 인사의 예경이니 그 차이는 없을까.

이 글은 위에서 제기한 3가지 물음을 전제한 채 예불을 ‘상주예경’과 ‘소칭예불’로 분류해 논지를 전개해 나가려고 한다. 가령 『석문의범』에서 대웅전 예경으로 제시한 사성례와 관음예문은 그 격이 보편의 불격이 아닌 특수한 불격과 보살격으로, 또는 그분들은 무량수전이나 극락전 또는 관음전이나 원통전에서 행하는 예경문으로 분류하면 더 좋을 법한데, 왜 대웅전 예경문에 배치하고 있을까, 또 우리와 같은 대승 불교를 신행하는 인근 중국이나 일본 등지의 예경문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하는 문제를 가지고 제 예경(禮敬) 예참(禮懺) 재문(齋文) 등에서 바람직한 예불의 의미와 행법을 찾아보고자 한다.

II. 상주예경

예는 예배이고 경은 공경하다 정도의 의미라고 한다면, 상주예경은 상주(常住)하는 분께 공경히 예배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항상 머물고 계시는 분에게 하는 예경이다. 현행 ‘예불문’의 ‘지심귀명례 시방상주 불타야중; 달마야중; 승가야중’ 할 때 행하는 예경을 상주예경이라고 할 수 있다. 『일용작법』의 예불법이고, 『석문의범』 소재 <소예참> 26예참에는 상주예경은 불법승의 결론적 예배로 13번째, 16번째,

11) 安震湖 編, 『釋門儀範』上卷 (前叻商會, 1935), p.1, p.9

26번째에 봉행된다. 다시 말해 삼보님께 행하는 예배라고 할 수 있다. 삼보께 3정례하는 예경은 석가모니부처님 입멸 후 삼보 체계가 성립된 이후의¹²⁾ 예경법이라고 할 수 있다. 상주예경은 조석이나 삼시 또는 육시에 일정하게 행하는 정시의 예경도 있지만 법당에 출입할 때 법당의 부처님을 향해 예경을 올리는 수시 예경도 있다.

1. 불 재세 시 예경

먼저 부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행하던 예경을 살펴보자.

당시 암바바리(菴婆婆梨)라는 이름을 가진 한 음녀(淫女)가 있었다. 그녀는 부처님께서 모든 제자들을 데리고 비사리로 와 어떤 나무 아래에 앉아 계신다는 말을 듣고는 보배 수레를 장식하여 타고 가서 부처님께 나아가 예배하고 공양하고자 했다. 미처 가까이 가기 전에 멀리서 세존을 바라보았는데, 그 얼굴이 단정하고 모든 감관[根]은 특이하며 상호(相好)를 원만히 갖춘 것이 마치 못 별 가운데 빛나는 달과 같았다. 이 모습을 본 그녀는 기뻐하면서 수레에서 내려 걸어들었다. 차츰 부처님 가까이에서 나아가 머리 조아려 그 발에 예배한 뒤 물러나 한쪽에 앉았다.¹³⁾

부처님을 뵈고자 하는 이는 먼 곳에서 수레에서 내려 세존을 바라보며, 세존께 예를 올리기 전에 세존의 모습에 감화된다. 이는 위외교화의 한 전형이라고 할 수 있다. 세존께 가까이 다가가 머리 조아려 그 발에 예배를 한다. 그리고 한쪽으로 물러나 조용히 앉는다. 멀리서

12) 다카사키 지끼도오(高崎直道), 『佛敎, 三寶의 體系』 『불교연구』 한국불교연구원, 1993, pp.13~30. 삼보 관념에 대해 논하고 있다.

13) 『遊行經』 『佛說長阿含經卷第二』(T1), p.13b, “欲往詣佛所, 禮拜供養, 未至之間, 遙見世尊顏貌端正, 諸根特異, 相好備足, 如星中月, 見已歡喜, 下車步進, 漸至佛所, 頭面禮足, 卻坐一面.”

부처님을 뵈고 예 올리고 한쪽에 앉는 동안 벌써 험뻑거리는 마음은 쉬어질 것이다. 부처님의 설법을 들을 준비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처음 부처님께 나아가갈 때 3정례라는 표현은 보이지 않는다. 설법을 듣고 귀가할 때의 예경을 보자.

곧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을 세 번 돌고 머리 조아려 부처님께 예배한 뒤 돌아갔다.¹⁴⁾

부처님을 처음 뵈 때는 ‘두면예족’으로 예를 올리는 데 비해 부처님 곁을 떠날 때는 두면예족(頭面禮足)하고 우요삼잡[=遶佛三匝]한 후 떠나갔다고¹⁵⁾ 보인다. 부처님을 떠날 때 오른쪽으로 세 바퀴 돌고 떠나갔다고는 하지만 인사를 세 번 했다는 기사는 보이지 않는다.

2. 빠알리 경전의 예불

국내에 소개된 빠알리 경전의 예경 차례는 예경, 귀의, 5계와 10계의 지게서원, 공양, 찬탄, 경전독송 등의 순서로 전개된다.¹⁶⁾ 먼저 예경문을 살펴보자.

namo tassa bhagavato arahato sammā-sambuddhassa
세상에 존경 받는 님,
거룩하신 님,
올바로 원만히 깨달으신 님께 절하옵니다.¹⁷⁾

14) 『遊行經』 『佛說長阿含經卷第二』(T1), p.12b, “即從座起, 遶佛三匝, 作禮而歸.”

15) 『中本起經卷上』(T4), 149c, “諸比丘, 受教頭面禮足, 繞佛三匝, 於是別去.”

16) 전재성, 『불자예불지송경』 한국빠알리성전협회, 1998; 일아 편역, 『예경독송집』, 민족사, 2008

17) 전재성, 앞의 책, p.14; 일아 편역, 앞의 책, p.9

‘나모(namo)’를 전재성은 ‘절하옵니다.’로 번역하고 있지만 일하는 ‘귀의합니다.’로 번역하고 있다. ‘귀의합니다.’라고 하는 번역은 ‘나무’와 ‘귀의’를 구별하지 않고 관습적으로 하는 번역이라고 보인다. ‘나모(namo)’를 ‘귀의’로 번역하게 되면 이어지는 ‘삼귀의’ ‘saraṇam gacchāmi’의 ‘귀의하다’와 변별이 되지 않는다.¹⁸⁾ ‘나무’는 예경 [vandanā]사이고, ‘귀의’는 몸과 마음으로 다가가기로 서원하는 삼귀의 하는[tisarana] 수계의 서원사라고 할 수 있으므로 구별할 필요가 있다. 대승 밀교 계통의 경전에서 ‘나모’는 ‘옴’과 같이 귀명사(歸命詞)로 진언을 생성하는 데 쓰인다. 이때는 진언불변의 원칙을 따른다면 번역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이며 굳이 번역하자면 고(古) 용례를¹⁹⁾ 따라 ‘귀명(歸命)’으로 번역하여 ‘귀의’와 변별하는 것이 좋다고 하겠다.²⁰⁾ 예불의 처음은 예불이지 귀의가 아니다. 그러므로 ‘나모(무)’ 그대로 두거나 ‘귀명’, ‘절합니다.’, ‘예경하나다.’²¹⁾ 등 실행문장으로 번역해야 할 것이다.

이 같은 예불 이후에 귀의삼보, 오계서원, 십악을 행하지 않겠다는 서원 등이 이어진다.²²⁾

18) ‘나무’와 ‘귀의’의 번역에 대해서는 좋고, 「나무, 귀의로 번역해도 되나」(불교신문, 2010.2.3일자)와 줄져, 『천수경, 의례로 읽다』(정우서적, 2011, pp.126~131)에서 자세히 다루었다.

19) 『다비문』 오방불에서 ‘나무아미타불’을 ‘귀명아미타불’이라고 번역하고 있다. 『釋門家禮抄』(1636, 韓佛全8), 281上; 『僧家禮儀文』(1670, 韓佛全8), p.398. 또 진언종단에서도 ‘나모’를 ‘귀명’으로 번역하고 있는 경우를 볼 수 있다.

20) 대한불교 조계종 포교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한글표준법요집』 한글화 작업과 동 종단의 의례위원회 한글화 과정에서도 이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21) 『보드가야 대기원법회 독송집』(티벳불교 카규과, p.23)에도 ‘예불’, ‘귀의’의 순서로 예불이 진행되고 있다.

22) “남방 예불에서 본 구절은 예불이나 일상 신행에서 항시 서두에 외는 경구이지 예불의식의 모든 것을 대변한다고 할 수 없다.”는 지적은 예불의 개념을 광의로 해석하여, 마치 한국불교의 예불 전후의 송주를 포함한 전 의례를 예불로 이해하는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3. 보례삼보

예불 하면 조석이나 범당에 들어갔을 때 행하는 예경만을 연상하지만 의례 가운데 상주삼보에 하는 예경은 ‘공양문’이나 ‘시식문’ 등에 수 없이 등장한다. ‘예경삼보’ ‘찬례삼보’ ‘보례삼보’ 등이 그것이다. 『일용작법』(1869) ‘예불절차’에서 확인할 수 있는 3정례의 상주예경은 조석이나 사시(巳時) 때 행하는 정시예경이라고 할 수 있다.²³⁾ 하지만 예경은 권공이나 시식 등의 의례에서도 빈번히 행해진다. 상단 삼보께 진언으로 공양을 권하는 의식인 『진언권공』의 3정례 예경은 예경삼보의 전형을 잘 보여주고 있다.

敬禮十方三世盡虛空界一切諸佛[一拜]

시방과 삼세의 허공계에 다하신 일체 제불을 공경하와 절하옵나이 다.[한 번 삼가 절하라]

敬禮十方三世盡虛空界一切尊法[一拜]

시방과 삼세의 허공계에 다하신 일체 존법을 공경하와 절하옵나이 다.[한 번 삼가 절하라]

敬禮十方三世盡虛空界一切菩薩緣覺聲聞一切賢聖僧[一拜]

시방과 삼세의 허공계에 다하신 일체 보살과 연각과 성문과 일체 현성승을 공경하와 절하옵나이 다.[한 번 삼가 절하라]²⁴⁾

23) 『日用作法』(KR3), p.530. 보례계주 이후에 “至心歸命禮盡十方極三際無盡海會一切佛陀耶衆：至心歸命禮盡十方極三際無盡海會一切達摩耶衆：至心歸命禮盡十方極三際無盡海會一切僧伽耶衆，惟願慈悲 受我頂禮 願共法界諸衆生 同入彌陀大願海” 원망의 말구 앞에 두 종의 3정례 예문이 들어 있다.

24) 學祖 譯, 『眞言勸供』(KR1), pp.539~540. 이 의문은 의례의 구조뿐만 아니라 국어학적 가치가 있다. ‘절하다’의 고어가 ‘저숫다’임을 확인해 준다. 불가에서 쓰고 있는 ‘저숫다’와도 어근이 다르지 않다고 보이는데 현재는 절하다와 저숫다를 다르게 인식하고 있다.

‘정법계진언(淨法界眞言) 진공(進供)진언 변식(變食)진언 출생공양(出生供養)진언 정식(淨食)진언 보공양진언 육법공양 운심계주’를 마치고 3정례를 하고 퇴공진언으로 공양을 마치는 의문인데 현행 진언 변공 다음의 ‘예참’이라고 명명된 의문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단서가 된다고 할 수 있다.²⁵⁾

또 삼단시식을 할 때도 상위의 삼보를 청해 의례의 집행자들이 함께 찬탄하며 절하는 찬례삼보나 보례삼보를 하며,²⁶⁾ 중위의 천선신중(天仙神衆)을 청해 상위의 삼보께 절하게 하는 ‘천선예성’을 한다.²⁷⁾ 하위의 고훈등중(孤魂等衆)도 상주삼보에 절하는 ‘고훈예성’ ‘가지예성’을 한다.²⁸⁾ 이때 행해지는 모든 예경은 상주소청삼보께 예를 올리는 예경법이라고 할 수 있다. ‘보례삼보’라고 하지만 천선신이나 하위의 고훈들이 성인께 예를 올리게 할 때는 ‘보례불법승보’로, 대중이 스스로 할 때는 ‘일심경례, 지심신례, 지심정례’ 등의 행위동사를 활용하면서 ‘찬례삼보’라고 칭하는 점이 다르다.

4. 보례계주, 향·다게의 역할

예불을 하는 계송과 진언인 ‘보례계주’는 『염불작법』(1575)이나 『일용작법』(1869) ‘예불절차’에도 나타나지만 도진(道眞, 1056~1120)이 편

25) 『통일법요집』(대한불교조계종포교원, 2003) p.132에 ‘예참’이라는 소목의 의미상 예경하며 참회한다는 의미이지만 이곳에 참회는 보이지 않고 예경하며 공양한다는 ‘예공’정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예참’이라고 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줄고(앞의 책, pp.287~290)에서 다루고 있다.

26) 志磐 撰, 『法界聖凡水陸勝會修齋儀軌』(KR1), p.591下; 죽암 편, 『天地冥陽水陸齋儀纂要』(KR2), pp.224下~225上; 德周寺 刊, 『水陸無遮平等齋儀撮要』(KR1), p.628

27) 志磐 撰, 앞의 책, p.600; 죽암 편, 앞의 책, p.228; 德周寺 刊, 앞의 책, pp.629下~630上

28) 志磐 撰, 앞의 책, p.608; 죽암 편, 앞의 책, p.236; 德周寺 刊, 앞의 책, pp.633下~634上

집한 『현밀원통성불심요집』의 부록 「공불이생의(供佛利生儀)」에는 공능과 용법이 자세히 설명돼 있다.

무릇 도(道)를 구하는 자가 위로 삼보에 공양하지 않고 아래로 사생을 건지지 않는다면 복과 지혜는 증장되지 않는다. ~ 만약 불법승 삼보에 공양하고자 하면 먼저 삼보상(三寶像) 앞에 나아가 오체투지로 법계에 두루 변재하시느 다함없는 불법승 삼보님께 널리 절하며 입으로는 보례진언 7편을 읽는다. 진언은 ‘옴 바아라믹’이다. 진언은 부사의한 힘이 있으므로 저절로 법계에 다함없는 삼보 전에 두루 자신의 몸이 다 있게 되어 예배하고 받들게 된다.²⁹⁾

위의 기사는 5언 절구와 진언으로 이루어진 ‘보례계주’가 총림이나 사원에서 현재와 같이 아침저녁 예불 때나 절(불당이나 법당)에 들어갔을 때 변재하시느 부처님께 절하는 예경임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염불작법』(1575)이나 『일용작법』(1869)의 예불계송은 조석예경의 바람직한 모습으로 전승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불과 왜 60여 년 후에 편찬된 『석문의범』에 각전예식 때 만일 다수(茶水)가 없을 때는 보례계주를 행하라고 하면서 대웅전 ‘예경편’에는 보례계송과 진언이 사라지고³⁰⁾ 향계[五分香偈]와 다게(茶偈)가 시설되게 되었으며, 조다석향(朝茶夕香)³¹⁾의 예는 어떤 의미가 함축되었는지를 보자.

29) 道殿, 『供佛利生儀』, 『顯密圓通成佛心要集卷下』(大正藏46), 1004b~c

30) 하지만 각전예식 때 만일 다수(茶水)가 없을 때는 보례계주를 행하라고 하고 있고(『석문의범』상권, 1935, p.54); 대각교를 제창한 백용성의 『대각교의식』(1927) ‘조석통상예식’에는 헌향계주와 보례계주를 함께 시설하고 있으며(KR4, pp.36~37); 동시대 권상로에 의해 편찬된 『朝夕持誦』(1931)에는 조석 송주 앞에서 보례계송과 진언염송을 시설하고 있다(KR4, p.70). 그런데 현행 예경을 볼 수 있는 『통일법요집』(2003)의 각전 예경에는 보례계주도 헌향계도 생략된 채 헌향진언 ‘옴 바아라 도비야 흠’만 제시돼 있다. 이후 보례계주는 천수경 앞에 보례계송과 진언이 합편되어 송주 시 예불하는 계송과 진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31) 정각, 『예불이란 무엇인가』(운주사, 1993/2004), p.43; p.50

논자는 중국과 일본의 몇 사찰이나 종단의 조모과송을 조사해 보았지만 우리와 같은 다게는 찾지 못했다.³²⁾ 조석[모]과송 때 제일 먼저 3정례를 하거나, 우리의 경우처럼 예불 전후 과송을 하거나 간에 다게를 활용하는 예는 보이지 않는다. 이는 향계와 다게의 공능이 같지 않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예불을 위해 한국불교의 현행 오분향계와 거의 같은 계송으로 예불을 하는 의식으로 홍찬(1611~1685)의 『예불의식』이 있다.

戒香定香解脫香, 光明雲臺遍法界, 供養十方無量佛, 聞香普熏證寂滅.³³⁾

현행 한국불교 예불의 오분향계와 크게 다르지 않다. 현행 한국불교의 오분향계의 말구 ‘원수자비에납수’가 ‘문향보훈증적멸’로 구체화되었다. ‘내가 지금 태우는 향은 오분법신의 향이며, 이 향이 향로에 타 올라 빛나는 구름이 되고 법계에 두루 해 시방에 두루 계신 한량없는 부처님께 공양하오니, 널리 끼이는 향으로 전하는 신심을 들으시고 적멸을 증득하게 하시네.’ 이 계송은 화엄경에 의거하고 있으며, 예를 올리기 위해 사르는 향은 오분법신의 향이라고 하고 있다. 이 법신의 향을 살라 나의 몸이 변재하시는 부처님 앞에 두루 변재하게 하여 향공양을 올리오니 들으시고 내가 적멸을 증득하게 해달라는 발원으로 향은, 믿음을 통신(通信)하는 신향계(信香偈)³⁴⁾이며 예경을 알리는[告]

32) 중국(『불광산종무위원회과송본』; 『승천선사조만과송본』; 『선문일송』) 본에는 향찬 또는 향로찬으로 일일과송을 시작하고 있다. 일본의 조동종 계열은 ‘자삼귀의’로; 진언종 계열은 개경계 참회계 삼귀의와 삼귀경을 마치고 십선계를 서원하고; 법화계열에서는 삼정례를 하고 참회와 삼귀의를 마치고 독경으로 들어가고; 시종근행식에서만 7연 절구의 소향찬을 하고 삼보례로 들어가고 있다.

33) 弘贊 編, 『禮佛儀式』(X74), p.634a

34) 智還 編, 『天地冥陽水陸齋儀梵音刪補集』(KR3), p.72上; p.77下. 「三卷仔夔文五晝夜作法規」의 「初日風伯雨師壇作法」의 ‘合掌偈’ ‘信香偈’ ‘開啓篇’의 목차에서 신향계는 고향계의 다른 이름이라고 할 수 있다.

고향계(告香偈)³⁵⁾인 것이다. 그러므로 오분향계는 ‘연향계’와 ‘고향계’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고향계를 저녁예불 때에만 하고 있는가. 시방에 변재하시는 삼보님께 공양을 올린다고 아뢴다면 아침 예불 때에도 향을 살라 알려야 하지 않을까. 여러 가지로 추론할 수 있겠지만 대소불사를 거행할 때 상단은 저녁에 청하고 삼경에는 하단을 청하는 시기, 또 다게의 설행처와 시기를 유념할 필요가 있다.

예불 다게 “아금청정수 변위감로다 봉헌삼보전 원수애납수” 외에도 국내 간행 의문(儀文)들에는 여러 종류의 다게가 보인다. 이들 다게는 상 중 하단 등 사용되는 곳에 따라 분류하거나, 각 다게를 행하는 시기 곧 차를 올리는 시기에 따라 나누거나, 차를 올리는 데 쓰이는 순수한 다게와 다와 약식을 함께 올리는 다약계(茶藥偈) 등으로 나뉘볼 수 있다.

하지만 어느 단이나 시기를 놓고 보면 청한 분을 자리에 모신 뒤, 앉은 뒤에 행해진다. 다시 말하면 정위(定位) 안좌(安坐)의 상태에서 행해진다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향이 청해 모셔서 예불 올리고자 할 때 행하는 의례라고 한다면 차는 앉아 계신 분에게 올리는 의례라고 소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조다석향’은 ‘석향조다’로 이해할 수 있는데 다분히 의례적임을 부인하기 어렵다. 왜인가. 모셔진 삼보님께 예불 올린다면 아침저녁이 구별될 하등의 이유가 없을 것이다. 마치 올리듯이 공양으로 올리면 된다.

대웅전 예경에서 보례계주를 하지 않고 오분향을 올리며 봉행하는 예경은 상주예경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5. 봉안예불

35) 『作法龜鑑』(『韓國佛教全書』10冊, 이하 한불전이라 함), p.553下

지금까지 상주예경의 예를 살펴보았다. 상주예경은 봉안된 성현께 예 올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다. 각 전각에 모셔진 성인에 따라서 예를 올리는 것이 상주예경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다. 대웅전에 모셔진 부처님이 삼보상, 삼존상이라면 상주삼보(常住三寶)의 예경을 올리면 될 터이다. 여기서 잠깐 삼보상과 삼존상에 대해 알아보자. 불교에서는 삼보 관념을 발전시켰고, 불자들은 그곳에 예경하며 귀의한다. 그런데 삼보에 귀의하면서 그 상징물로는 삼존상을 모시고 있다. 중앙에 석가모니불을, 좌우에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을 삼존상이라 하고 있다. 그런데 「공불이생의」에는 삼보상 앞에서 예경하라는 표현이 등장한다. 삼보상은 별도로 있는 것일까. 논자는 삼보상은 삼존상의 다른 이름이라고 이해한다. 석가모니불은 불을 상징하므로 큰 문제가 없고, 문수보살은 법왕의 아들이고 제불의 스승으로, 보살이 법을 사자 후를 토하듯이 사자에 앉아 법을 설하는 문수보살은 법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다. 보현보살은 대원행을 갖고 있고 제불의 만이가 된다. 그러므로 육바라밀의 만행을 의미한다. 육바라밀을 실천하는 승(僧)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삼존상은 삼보상을 표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³⁶⁾

7정례 중의 “지심귀명례 시방삼세 제망찰해 상주일체 불타야중, 달마야중, 승가야중”에 세 곳에 각 일 배 도합 삼배의 예를 올리면 될 것이다. 비로전이라고 하면 ‘청정법신비로자나불, 원만보신노사나불, 천백역화신 석가모니불’로, 극락전이라면 사성례나 ‘극락도사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을, 육성을 모셨으면 그에 걸맞게 정례하면 봉안예불이 될 것이다.

조석의 정시에 대중이 같이 예배하든 홀로 예배하든 또 불당에 수시로 출입할 때마다 예배하든 삼존상에 예경하고 귀의하면 3정례 예

36) 道殿, 『供佛利生儀』, 『顯密圓通成佛心要集卷下』(大正藏46), 1004b~c; 弘贊 編, 『禮佛儀式』(X74), pp.634~635

불이라고 할 수 있다. 현행 법회 등의 행사 초두에 행하는 ‘삼귀의’는 예경 다음에 지계서원으로 행해지기도 하고 합동으로 수계할 때 행하기도 하며, 고향들을 청해 시식을 할 때, 수계서원을 하게 할 때 행해지는 ‘귀의’의 의식이므로 예경의 의례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봉안된 성인께 예배할 때 절을 삼배 하지는 않지만 ‘지심귀명례 ~ 불타야중’ 하며 큰절을 한 번 하면서 고개를 세 번 조아리거나³⁷⁾ 또 저두레 계수레 고두레를 하게 되므로 ‘삼삼례’라고 할 수 있다.

Ⅲ. 소청예불

소청예불은 불리 청해[召請], 오신 부처님께 예를 올리는 의례이다. 현재 전각에 모셔져 있는 분이 아닌, 각각의 처소에 계시면서 그곳의 중생들을 교화하시거나 시방에 두루 다니면서 교화하고 계신 분을 불리 청해 예를 올리는 소청예불은 상주예경과는 의미상 차이가 있다. 한국불교 현행 칠정례와 예참예불, 소청삼보예경을 통해 소청예불의 전형을 보기로 한다.

1. 7정례 예경의 특징

한국불교에서 ‘예불문’ 하면 도하 경지 각지의 사암에서 조석으로 행하고 있는 7정례 예불을 떠올리게 마련이다. 그런데 본고는 7정례보다 시방에 상주하시는 삼보님께 예를 올리는 상주예경을 중심으로 설명했다. 그렇다면 7정례는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으며, 논제의 뒤에

37) 沈祥鉉, 『佛敎儀式各論』(한국불교출판부, 2000), p.173

있는가. 그간 현행의 조석 예불에 대해서는 연구 성과도 있고³⁸⁾ 지극히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보이므로 순수하게 부처님과 삼보님께 예를 올리는 상주예경을 먼저 다뤘다.

다게와 7정례문, 유원의 원문으로 구성된 현행 7정례는 1950년대 중반 보급되기 시작한 이래 한국불교 조석예불문의 전형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향계와 다게는 2장에서 다루었으므로 언급하지 않고 본문만을 보자.

7정례는 석가모니불, 불타야중, 달마야중, 문수 보현 관음 지장보살의 4보살, 영산 당시[佛在世]의 십대제자 등 1250인의 아라한, 전등 조사 종사 등 제대선지식, 승가야중으로 7등분해 예경하고 있다. 석가모니불이나 문수 보현 등 성인은 별상으로 모셔지기도 하니 존상 예경이 존재하며, 나한상을 모신 영산전이나 나한전이 있기는 하지만 대웅전에 나한상을 모시고 있는 경우는 흔치 않다. 특정의 조사 종사를 모신 조사전이 있기는 하지만 제대조사를 모신 전각은 존재하기 힘들다. 결국 7정례의 소례 성현들 중 변재삼보 외에 석가모니부처님, 문수 보현 관음 지장보살님 등은 한곳에는 아니지만 존상으로 모셔지지만, 나한 성중과 제대조사 종사 등은 존상으로 모셔지는 경우는 드물다.

7정례는, 예문을 정립시킨 주체들의 인적(人的) 물적(物的) 토대를 추측할 때 선종 중심이라고 수 있지만³⁹⁾ 석가모니불 예불을 선행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백용성의 대각사상과도 맥을 같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⁴⁰⁾

38) 정각, 『예불이란 무엇인가』 운주사, 1993/2004; 宋賢珠, 『現代 韓國佛教 禮佛의 性格에 관한 研究』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9; 박현능, 「한글 예불문과 반야심경」, 『한글과 불교의식』 백화도량, 1993

39) 송현주, 앞의 논문, p.133

40) 예불을 석가모니부처님 상 앞에서 행할 때 하는 ‘예석가모니불’문을 제외하고 대각 석가모니 부처님께 예경하는 의문은 찾기 힘들다. 예불은 변재상주하시는 法報化 삼신이 중심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 백용성은 대각(大覺)운동을 전개하면서 보례계주 이후 석가모니불과 상주삼보에 예를 표하는 4정례의 향례를 약례의 조석예불문으로 제시하고 있다(『대

하여튼 7정례는 전각에 모셔 놓은 성인께 절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님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봉안된 존상도 아니고 변재상주하시는 삼보님만도 아닌 여러 성인께 인사를 드리는 원형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2. 예참 예불

불교의례는 자행(自行)과 화타(化他)⁴¹⁾ 또는 자행(自行)과 타행(他行)으로 분류하는데, 이때 자행의례로 예참의례와 일상예경의례를 들고 있다.⁴²⁾ 예경과 함께 예참의례를 대표적인 자행의례라고 하는 견해에 동의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그렇다면 예경과 더불어 자행의례라고 하는 예참은 어떤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가. 먼저 ‘예참’이라는 이름을 가진 의문을 보면, ‘소예참’, ‘대예참’⁴³⁾, ‘조사예참’⁴⁴⁾ 등이 확인된다. 그런데 『석문의범』 소재 ‘소예참’, ‘대예참’은 ‘예참’이라고 명명하고 있지만 ‘오분향례’와 같은 형태의 예경문만 존재한다. ‘조사예참’에 보이는 예경 이후의 ‘참회 권청 수회 회향 발원’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름과 달리 예참의 형태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하나 『석문의범』 소재 대웅전 예경문의 하나인 ‘관음예문례’는 예와 참회가 반복적으로 이어진다.⁴⁵⁾ 관음예참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예경하고 참회하는 의례라고 볼 수 있는 소예참과 대예참에 참회하는 편이 생략되고 예경만 남았다. 대소예참과 유사한 ‘화엄대예문’⁴⁶⁾ ‘화엄예경문’⁴⁷⁾ 역시 축원은 존재하지만 참회편은 보이지 않는다.

각교의식』, KR4, pp.36~37)

41) 송현주, 앞의 논문, p.28 재인용.

42) 박세민 편, KR1, pp.11~12

43) 안진호 편, 『석문의범』상권, pp.2~7, pp.13~38

44) 智還 編, 『禪門祖師禮懺』, 『天地冥陽水陸齋儀梵音刪補集』(KR2), pp.50上~53下

45) 안진호 편, 『석문의범』상권, pp.2~7, pp.39~54

46) 鼎奭 書, 『華嚴大禮文』(KR4), pp.685~716. 이 예문을 KR 편자들은 화엄 신중에게 예경하는 참회의식문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예참’은 예불참회의 약칭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지만 예참(禮懺) 참의(懺儀) 참법(懺法)과 같은 참회하는 의식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들 참법에 나타나는 예참의 순서는 행법에 따라 조금씩 차이를 보이지만 대체적인 차례는 크게 다르지 않다.⁴⁸⁾ 대체로 수행자와 도량을 깨끗이 정화하고 향을 사르고 꽃을 공양하고 부처님을 청해 예경을 하고 ‘참회’를 하고 권청(勸請) 수희(隨喜) 회향(迴向) 발원(發願)을 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청해 모셔서 예경을 올리는 것이다.

이때 청하는 성인들은 당해 종파 소의경전 소재 불보살, 경전과 다라니, 보살 연각 성문들의 성현들이다. 가령 『법화삼매참의』에는 ‘석가모니불, 다보세존, 석가모니분신세존, 시방일체상주불; 묘법연화경, 시방일체상주법; 문수보살, 미륵보살, 관세음보살, 약왕 약상보살, 관세음 무진외보살, 묘음 화덕보살, 상정진 득대세지보살, 대요설 지적보살, 수왕화 용시보살, 하방상행등무변아승기보살, 법화경중 보현보살 등 일체제대보살, 법화경중 사리불 등 일체제대성문중, 시방일체상주승, 법화경중 일체 천룡 등 팔부신중’ 등의 삼위를 불러, 나의 봉청을 받으시고 도량에 이르시기를 청원한 다음 찬탄을 하고 봉청(奉請)한 차례대로 예불을 하지만 봉청된 사이에 있다고 보이는 보살들에게까지 (수왕화보살과 용시보살 사이에 지지보살) 예를 올린다. 하지만 마지막에 청한 신중에 대한 예경은 보이지 않는다.⁴⁹⁾

『왕생정도참원의』에는 ‘석가모니불, 정광불 광원불 용음불 등 53불, 자재왕불, 시방현재부동불등 진시방하사정도일체제불, 왕세7불 미래현겁천불 삼세일체제불, 극락세계 아미타불; 대승48원 무량수경 칭찬경

47) 『華嚴大禮文』(KR4), pp.685~716

48) 가령, 智顓, 『法華三昧懺儀』(T46, pp.950上~954中); 『往生淨土懺儀』(X61, pp.660上~664下)는 ①도량을 엄정하고, ②도량에 들어가 행하는 방법을 설하고, ③바르게 마음을 닦고, ④향을 사르고 꽃을 흩어 공양하고, ⑤청하여 예경하고, ⑥찬탄하고, ⑦예불하고, ⑧참회와 발원을 하고, ⑨법좌를 돌고 경전을 독송하고, ⑩좌선을 한다.

49) 智顓, 『法華三昧懺儀』(T46), pp.950下~952中

등 법보; 문수 보현 무능승 불후식보살 등 일체보살, 관세음보살, 대세 지보살, 과거 아승기겁 법장비구보살, 극락세계 신발도의 무생불퇴 일 생보처 제대보살, 사리불 등 일체 성문 연각승, 범석 사왕 일체천중 용 귀제왕 염라도도 호가람신 일체현성'을 칭하여 찬탄하고 예불하는데 불보에 대해서는 6칭하였지만 15처로 세분해 예배하고 있으며, 범석 사왕 등 제천신중에는 고배(叩拜)를 제외하고 있다.⁵⁰⁾

봉칭하여 예경을 하고 나면 참회를 하게 된다. 국내 예참법에 참회 부분이 남아 있는 의문은 참회계가 남아 있는 『선종조사예참』⁵¹⁾과 육 근발원법이 편재된 『자비도량참법』⁵²⁾ 『예불대참회문』⁵³⁾ 등이 있다.

50) 遵式, 『往生淨土懺儀』(X61), pp.661上~662下. 이 '懺願儀'는 蕩益(1599~1655)의 『淨土十要』(X61)의 卷第二에 편철되어 있다.

51) 智還 編, 『禪門祖師禮懺』, 『天地冥陽水陸齋儀梵唄音刪補集』(KR2), pp.53. 조사예경을 끝내고 "삼보 팔난 구류 사생 모두가 모든 장애를 없애고자 하기 위해 귀명참회를 합니다."하며, "저희 제자들은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합니다. 저희들이 예로부터 지은 악업들은 다 탐진치로 말미암아 몸과 입과 뜻에서 나왔으니 일체를 저희들이 다 참회합니다."라고 하고 "참회를 마치고 귀명의 예를 올립니다." 절을 하고 다시 "저희들은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합니다."하고 이어 권청 계송으로 들어간다.

52) 『詳校慈悲道場懺法』(KR1), pp.120~126; 耘虛, 『자비도량참법』(대각회출판부, 1979), pp.588~614

53) 국내 유통 『예불대참회문』(광덕 편, 백련선우회, 불기 2531)은 '백팔참회문'이라고도 알려져 있다. 중국 승천선사 『조만과송본』에는 쌍일 만송으로 존치돼 있고, 『선문일송』에는 '모시과송'에 편재돼 있는데 국내 유통본과 달리 108배의 절을 하는 곳이 따로 표기돼 있지 않다. 하지만 中國佛教協會編, 『中國佛教』第二輯, 課誦편에 108배 행법이 소개돼 있다. "이 본문은 송 부동의 「삼십오불명예참문」을 의지해서 정리한 것으로, 전에는 53불로 늘였었다. 끝부분 '법계장신아미타불'과 '보현십대원계'까지는 모두 108정례를 하는 것으로, 108번뇌를 끊고자 하는 뜻을 표한 것이다. 108례의 예법은, 처음 4구, 금강상사, 귀의불법승의 3구, '아금발심'부터 '삼보리' '진허공일체제불' '일체존법' '일체현성승'에 각각 한 번씩 절하고, '여래십호'에 한 번 절하고, 89佛에 89번 절하고, '여시등'에서 '금개참회'까지 '금제불세존'에서 '아금귀명례'까지 '소유시방세계중'의 8구, '어일진중진수불'의 8구, '이제최승묘화만'의 12구, '아석소조제약업'의 4구, '시방일체제중생'의 4구, '시방소유세간등'의 4구, '제불약육시열반'의 4구, '소유예찬광양복(불)'의 4구, '원장이차승공덕'의 16구 각각 한 번씩 절하면 합하여 그 수가 채워진다." 中國佛教協會編, 『中國佛教』第二輯 (知誌

이 『예불대참회문』의 53불은 불공 편 『瑜伽集要焰口施食儀』에 보이고 있고 현재 중국불교의 저녁 예불참회발원으로 쓰이고 있다. (또 이후에 ‘몽산시식’이 행해지고 있다.) 이에 비해 이산선사 발원문은 『선문일송』의 조모과송에서는 아침 예불발원문으로 활용되고 있다.⁵⁴⁾ 이는 예참의 의미와 공능을 암시해 주는 한 단서가 된다고 할 수 있다.

‘법화삼매참의’나 ‘천수안대비심주행법’과 같은 참법의 최종 목적은 ‘좌선실상정관방법’ ‘관행(觀行)’으로 삼매를 닦는 것이다. 정토계통의 ‘왕생정토참원의’ 참법도 예참의 소청과 예불 참회와 선요(旋繞) 송경(誦經) 등을 마치면 마지막은 좌선(坐禪)을 닦고 있다.⁵⁵⁾ 결국 예참은 참선을 위한 사전 수행이라고 할 수 있다.

3. 소청삼보예경

‘예참’ 예불은 봉안된 성인에게 예경하는 상주예경이 아니라 신앙하는 삼보를 소청(召請)하여 찬탄하고 예경하는 의식이라고 한다면, 석가모니불, 불타야중, 달마야중, 4보살, 제대성현, 제대조사종사, 승가야중께 예경하는 현행 7정례는, 소청하여 예경하는 ‘예참’의 예경과 그 구조를 크게 달리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예참의 이전과 이후의 참회 권청 등이 보이지 않고 상주예경의 유원구가 편입되어 있다. 의문집(儀文集)에 ‘예경편’이라는 편목이 처음 설정되었다고 보이는 『석문의범』 대응전 예경편 소재 9개의 예경문은, 각 전각 예경문과 달리 소청하여 예경하는 ‘예참’ 형태의 변형이라고 해도 크게 어긋나지 않을 것이다. ‘참의’에서 볼 수 있듯이 소청은 여섯 분을 하였지만 예경은 15곳으로 세분화해서 예경한다. 상주예경과는 근본적으로 그 모습이 다르다.

出版社, 1982/1989), pp.357~358

54) 『선문일송』, 『승천사 조만과송본』의 목차 참조.

55) 遵式, 『往生淨土懺儀』(X61), pp.663~664

7정례가 소청의 예경이라고 하지만 끝에 ‘유원 무진삼보 대자대비 수아정례 명훈가피력 원공법계제중생 자타일시성불도’라는 ‘유원’의 원망 구절을 삽입해 축원을 하고 있다. 보통축원이나 행선축원을 하는 경우라면 ‘유원 무진삼보 대자대비 수아정례’로 예경이 마감되는 것이 적의할 것 같지만 7정례는 그렇지 않다. 만일 보통축원이나 행선축원을 하지 않는다면 이 예경의 공덕으로 법계를 위해 ‘명훈가피력 ~ 자타일시성불도’의 법계축원을 하면 될 것이다.⁵⁶⁾

IV. 결어

지금까지 상주예경과 소청예불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두 예불의 유형을 놓고 볼 때 현행 7정례는 상주예경이라기보다는 ‘예참’에서와 같은 소청예불이라고 할 수 있다. 사암의 본전이 대웅전이든 극락전이든 원통전이든지를 불문하고, 7정례로 봉행되는 현행 조석 예불은 신행하는 삼보를 청하여 예경을 하고 내가 삼보께 예경한 인연공덕으로 법계의 중생들이 일시에 불도를 이루기를 발원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예문 가운데 전등조사를 거론하는 여섯 번째 예경문과 7정례가 성립되는 데 역할을 한 주체들의 성향 등을 고려해볼 때 선종적이라고 하지만 종파적 성향은 그다지 크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종파적 성향이 있다고 한다면 종조 혹은 중흥조에 대한 예경을 하는 것이 지당할 터이지만 전등의 흐름, 불법의 흐름을 드러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조석이나 수시 예경의 봉행방법과 대상, 시기 등에 대해 다음과 같

56) 중국과 일본의 몇 조모과송 법요집에서 삼례 다음에 유원의 원망을 축원하는 예문은 찾을 수 없었다.

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예불하는 방법이다. 향대로 나아가 몸을 바르게 하고 잡된 생각을 쉬고 성인의 덕을 생각하며, 존상을 우러러 보며 두 무릎을 땅에 댄다. 손으로 향[대(로)]를 잡고[을] 올리고 오분향게송을 읊는다. 어떤 불보살현성승인가에 따라 덕을 찬탄하고 예경하는데, 반드시 삼보에 먼저 예경해야 한다. 삼보님은 최상의 수승한 길상이며 복전이므로 중생의 업의 때와 마장을 소멸되게 할 수 있으며, 지으신 선한 일로써 (중생들의 소원을) 다 성취하게 해준다. 찬불게송을 읽고 “일심정례 시방삼세 일체제불세존” 하며 오체투지의 집족례를 한다. 그리고 관상을 한다.⁵⁷⁾ 이와 같이 범보와 승보에 예경하고, 존상에 따라 찬탄을 하고 예경을 한다.⁵⁸⁾

둘째, 각 전각의 봉안 존상에 맞게 예경하는 것이다. 극락전이 주전이라면 극락 3성 내지 4성에 예경하고, 석가모니불과 문수 보현보살이 협시하고 있는 대웅전이라면 ‘예석가모니불과 예문수보살 예보현보살’로 봉행하면 좋을 것이고, 같은 대웅전이라 하더라도 협시보살로 관음 지장보살이 봉안되었다면 거기에 맞도록 ‘예석가모니불 예관음보살 예지장보살’과 같이 일정하게 3정례로 봉행하면 여법할 것이다.⁵⁹⁾ 첫째의 상주예경과 더해지면 최소한 4정례 또는 6정례가 될 것이다.

셋째, 예불의 시기이다. 그간 예불은 육시예불, 삼시불사, 조모과송⁶⁰⁾ 등으로 그 회수가 줄어왔다. 한용운은 1일 1회를 주장하고 있는

57) 弘贊 編, 『禮佛儀式』(X74), p.634a. 향로를 잡고 한다고 하고 있지만 국내에는 향로를 잡고 작법하는 행법은 오래전부터 행해지지 않은 듯하다.

58) 현재 각청 공양 때 청사와 향화청을 하고 나서 가영의 형태로 탄백을 하며 ‘고아일심귀명정례’라고 ‘정례’계를 저두레(반배)로 하고 있다. 이후에 진언권공을 연결하게 되어 예공(예참)과 상거하게 되었다. 사암 등 대웅처소에서는 운집중 다섯 마치를 쳐 대중이 모이면 향을 올리고 삼정례를 한 후 찬불가를 제창하고 물러나는 간편한 의식으로 하자는 한용운의 견해는 유의미하다.

59) 백용성은 『대각교의식』에 석가불과 삼보에 절하는 4정례의 향례를 제시하고 있고; 한용운은 『조선불교유신론』(삼성문화문고, 1972, p.93)에서 1일 3정례를 주장하고 있다.

60) 弘贊 編, 『禮佛儀式』(X74), p.634a. “晝夜 6시나 혹은 日 3시나 혹은 晨

데, 현 실정에 오히려 적합하다고 보인다. 자수(自修)뿐만 아니라 다양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대중을 제접(提接)하는 화타(化他)가 승가의 본분임을 고려한다면 전 대중이 동참할 수 있는 1회 예불 준수도 결코 무의미한 것은 아닐 것이다.⁶¹⁾ 소임자(所任者) 중심으로 봉행되는 것보다 이판사판을 막론하고 함께할 수 있을 때, 예불은 신행대중의 결속과 일체화를 이루는 기제가 되며, 능례(能禮)와 소례(小禮)가 불이(不二)를 체득하는 수행이 된다고 하겠다.

昏”로 예불의식의 때를 칭하고 있는데, 17세기에 이미 조석 2시가 일반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三時繫念儀範』 국내 본[月渚 道安書, 『三時繫念儀範文』(KR2)]이 최근에까지 유통되고 있는 점이나 삼분정근 사분정근 등이 행해지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육시 예경은 아니더라도 3시 정근도 행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61) 재가자들의 신행에서 일상예불을 위해서는 더욱 그렇다고 생각된다. 재가자들이 매일 절에 가서 예불을 올리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러므로 아침 예불이든 사시예불이든 일정한 시기에 불법승을 염송하는 행법을 제시하고 이끌 필요가 있다. 재가 범사로서 법회를 하고 있는 신규탁 교수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 알람을 오전 11시에 진동으로 맞추어 봄시다. 그리고 11시가 되면 잠시 자신이 하던 일을 멈추고, 마음속으로 성주암 법당의 부처님을 머리에 떠올리고, 자신이 지금 부처님께 사시불공을 하는 듯이 묵상하는 일입니다. 11시에 성주암 법당에서 올리는 불공에 마음으로 동참하는 일입니다.”라고 ‘핸드폰 알람을 11시에 맞추어 기도합시다’(신규탁, 『때 묻은 옷을 걸면서』, 정우서적, 2009, pp.52~54)에서 하루 3초간 기도하기를 제안하고 있다.

참고문헌

T 大正新修大藏經

KR 韓國佛教儀禮資料叢書

X 大藏新纂卍續藏經

「遊行經」, 『佛說長阿含經卷第二』(T1)

「中本起經卷上」(T4)

智顛, 『法華三昧懺儀』(T46)

道殿, 「供佛利生儀」, 『顯密圓通成佛心要集卷下』(T46)

遵式, 『往生淨土懺儀』(X61)

弘贊 編, 『禮佛儀式』(X74)

德周寺 刊, 『水陸無遮平等齋儀撮要』(KR1), 『詳校慈悲道場懺法』(KR1)

學祖 譯, 『眞言勸供』(KR1), 『水陸無遮平等齋儀撮要』(『韓國佛教儀禮資料叢書』KR1)

志磐 撰, 『法界聖凡水陸勝會修齋儀軌』(KR1)

竹庵 編, 『天地冥陽水陸齋儀纂要』(KR2)

月渚 道安 書, 『三時繫念儀範文』(KR2)

智還 編, 「禪門祖師禮懺」, 『天地冥陽水陸齋儀梵音刪補集』(KR2)

智還 編, 『天地冥陽水陸齋儀梵音刪補集』(KR3)

鼎奭 書, 『華嚴大禮文』(KR4)

『華嚴大禮文』(KR4)

巨璇 撰, 『作法龜鑑』(『韓國佛教全書』10冊)

金月雲 編, 『日用儀式隨聞記』, 中央僧伽大學出判局, 1991.

다카사키 지끼도오(高崎直道), 「佛敎, 三寶의 體系」, 『불교연구』, 한국불교연구원, 1993.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 『통일법요집』, 조계종출판사, 1998/2003.

박세민 편, 『韓國佛教儀禮資料叢書』, 삼성암, 1993.

박현능, 「한글 예불문과 반야심경」, 『한글과 불교의식』, 백화도량, 1993.

宋賢珠, 『現代 韓國佛教 禮佛의 性格에 관한 研究』,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9.

- 沈祥鉉, 『佛敎儀式各論』, 한국불교출판부, 2000.
- 安震湖 編, 『釋門儀範』上卷, 前卍商會, 1935.
- 耘虛, 『자비도량참법』, 대각회출판부, 1979.
- 윤이흠, 「종교와 의례」, 『宗敎研究』16호, 한국종교학회, 1998.
- 이성운, 『천수경, 의례로 읽다』, 정우서적, 2011.
- 일아 譯, 『예경독송집』, 민족사, 2008.
- 전재성, 『불자에불지송경』, 한국빠알리성전협회, 1998.
- 정각, 『예불이란 무엇인가』, 운주사, 1993/2004.
- 中國佛敎協會編, 『中國佛敎』第二輯, 知誌出版社, 1982/1989.

Abstract

The meaning of Buddhism Buddhist worship and How to do it

Lee Sung-woon

(East Asian Buddhism ritual culture research laboratory,
committee member)

Buddhist worship is a daily worship done to greet Buddha.

Even though it is only a daily greeting worship done to Buddha, different from Junggen(精勤), which is done Songju(誦呪) in the morning and night and the sacred image of Buddha, kowtows are done 7 times to Sakyamuni Buddha among Sangju-Sambo(常住三寶: Three treasures that are always present), Sambo(三寶: Three treasures) and Sengbo(僧寶: Buddhist monk treasure) which are again divided into other different four places.

This kind of Buddhist worship is not Sangju-Yaegyung(常住禮敬: Always praying in front of Buddha) but is a form of 'Yaecham'(禮懺: Praying in front of the Buddha) which is done by firstly dividing the kind of Buddhist monks that does Sinhaeng(信行) into 3 parts and doing Chung Hae and praying in front of the Buddha, repenting and doing Gunchung(勸請: Sincerely listening).

This writing talks about how and when to pray in front of Buddha and what kind of mind should go aside with it.

Through Yaegyung(禮敬) done at the moment of Bul-Jaesae(佛在世: Buddha is present in the world), we can see the Yaegyung done at the first moment of meeting and leaving the Buddha.

The scene of being influenced from the instant people meet Buddha

is one kind of edification that is mentioned above and Yaegyung can be found in the scene where people who opened their heart after listening to Buddhist sermon leaves Buddhist which is done by going around the Buddha three times and doing kowtow by making contact with Buddha's feet with their face then leaving.

Further more, Yaegyung order is identified in Yaegyung rule of Pāli Buddhist scriptures, Yaepul(禮佛), Samgyuei(三歸依), Jigyae(持戒) 5Gyae-Syuwon(五戒誓願) and Chantan(讚嘆: Admiring).

Yaepul is done at the fixed times 6 o'clock, 3o'clock, 2 a.m., 2 p.m. and Susi(隨時: Occasionally) when people go in to the Buddhist sanctuary and the meaning of Bolyaegaejoo(普禮偈呪) is found at the process of the Bolyaegaejoo(普禮偈呪) scene appearing at this moment.

It is inferred that Obunhyanggae(五分香偈) is offered as the scent of Communication in the evening, not Nohyangchan(爐香讚) that is used in China and Japan and Dage(茶偈) is was set in the morning because it is the offering which is offered to the person who is kept by request or the person who resides in the place.

This writing is a summary of 'Yaechan'(禮讚), current Korean Buddhism's Ch'ilchönglye, called 'Sochung(召請) Buddhist worship(禮佛)'.

Key words

Yaegyung(禮敬), Yaepul-Moon, Bolyaegaejoo(普禮偈呪), Samchung-lyae(三頂禮), Ch'ilchönglye(七頂禮), Hyanggae(香偈), Dage(茶偈)